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복음으로 여는 유다서-

민수기 16:1-3, 유다서 1:3-4

정윤돈 목사님

* 민16:1-3 레위의 증손 고하의 손자 이스하의 아들 고리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우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에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 유1:3-4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로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님인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드립니다. 그러나 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공훈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불가침한 영육 간의 질병과 문제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직 복음과 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하여, 내가 있는 직장과 산업을 위하여 울림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세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레미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 믿음의 중요성과 증거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건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작은 누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서울 반포에 살 때 나는 신반포교회를 다녔고, 작은 누님은 서문여고를 다니며 친구를 따라 가는 길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 되었는데도 누님이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그 후로 누님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목격했다. 하나님께서는 누님에게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의 문을 다 열어 주셨다. 누님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바로 대학에 간 것은 아니었다. 가장 힘들다는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니 그곳 이사장님이 감동하여 "너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다. 사실 누님이 일본으로 떠날 때 어머니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 어머니는 "너는 가지만 내가 돈은 하나도 보내줄 수 없다.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꼭 공부를 해라"라고 하셨다. 실제로 누님이 일본에 갔을 때 어머니가 패딩점퍼 하나 보내준 것 외에는 금전적인 지원을 거의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아르바이트로 해결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누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편지 내용이 전무후무한 감동을 주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이 이것이었다. "안녕을 해서 돈이 너무 없고 힘들지만, 반차마자 써 버릴까 봐 실업조를 미리 패이 봉투에 넣고 폴로 붙여 버렸다." 그 내용을 보면서 누님의 믿음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누님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그 누님의 아들인 내 조카 이야기도 있다. 조카가 일본에서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학비 비해서 어떻게 다닐지 걱정했다. 그런데 로타리 클럽인지 라이온스 클럽인지 장학재단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뽕뽕한 학비 전액은 물론이고 우리 돈으로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였다. 특이한 점은 그 장학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현찰로 준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인턴십을 하게 했다. 현금 급여를 받고 모임에 안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석사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본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라고 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왔지만, 한국에 와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직장생활만은 우리사주상을 결혼자주상으로 쓰려고 꿔왔는데, 그 이후로 주기가 그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작은 결단이 복의 근원이 되어 천대까지, 후대까지 응답을 주는 것이다.

우리 후대 중 한 명이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보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교회에서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등 모든 예배에 참석하느니 의아했었다. '오늘도 왔네? 재는 공부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예배를 드렸

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서울대에 원서를 썼다고 했다. 나는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예배드리면 다 되나? 저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서울대에 썼다니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기적같이 확실히 붙어 버렸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지금은 홍콩에 가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흔히 서밋(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을 이야기한다. 서울대학교에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솔직히 나도 우리 교회에서 대단한 서밋이 나올 것이라고는 확실히 믿지 않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니, 예배에 성공하고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까지 나오는 아이들은 다 성적이 좋다. 원래 공부를 별로 못했던 아이들도 다 잘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올 A+'를 맞는다. 목사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다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인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서울대학교를 못 갔으니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예로 우리 교회 후대인 서지웅 군의 이야기를 하겠다. 이 친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내가 매일같이 성경공부를 시켰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성경 읽어봐라"하면 읽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성경공부 시간에는 빠지지 않고 꼭 와서 앉아 있었다. 고3말이 되어 이제 사회에 나가 공장에서 일해야겠거니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저 대학 갈 거예요"라고 했다. 속으로는 '한글도 못하는데 무슨 대학이냐' 싶었지만, 기적적으로 미달인 곳이 있어서 토목과에 합격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선교교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는데,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두수가 나오는 시스템에서 항상 1등을 했다. 항상 메시지를 들으며 공부하고 학교를 다녔다. 그러더니 대학공부를 마치고, 토목기사 자격증도 났다. 나중에는 두바이에 간다고 했다. 내가 예전에 "나는 가족이 있으니가 무슬림 선교하느니 순교하면 안 되지만, 너는 고아니가 죽어도 괜찮다. 무슬림 선교 해라"라고 했던 말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었다. 꼭 순교하러 간 것은 아니지만, 내치 속에 지나가듯 한 말을 언약으로 잡고 도전한 것이다. 거기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고3때까지 한글을 못 읽던 아이도 믿음과 복음에 집중하면 희망이 있다. 나이, 학벌 아무 관계 없다. 믿음은 참된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속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 한 번이라도 진자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질병, 자식 문제에 매여 있지 마라. 말씀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시고 앞서서 문을 열어 주신다.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같은 3단체를 능가하고 축복을 껴는 팀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이 그 구역이 되어야 한다.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천 명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은 학업과 산업현장에 영적 명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서 밤을 지새우며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 파수꾼이 졸면 성문이 열리고 정복당한다. 가정과 현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납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들어가는 말씀 : 유다서의 배경과 경고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 예수님의 목신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는데, 꾸지람과 징계의 내용이 많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꾸지람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유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강하게 말했다. 당시 교회 안에 불신앙적이고 구약에서 금지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해한다. 총이나 대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대항하여 당을 짓고 250명의 지휘관을 이끌고 반역했다. "당신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리더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며 대들었다. 영안이 어두워진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맞먹으려 든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우습게보고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는 병든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다. 효자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쓰임받는다. 들을 줄 모르고 대적만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고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 사비비 이단애 빠진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시키면 잘 듣는데, 우리 교회처럼 복음과 사랑으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길 축원드린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어린 아이, 첫머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자제로 예배드려, 갈급한 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된다. 배가 부른 사람처럼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만 모습이 아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리와 그를 따르던 250명의 무리는 땅이 갈라져 죽거나 불이 나 죽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를 목격한 백성들이 "모세 당시 때문에 저 훌륭한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님이나 너무 싫어한다"며 원망하다가 열명으로 14,700명이 죽었다. 믿음이 없으면 별것 아닌 작은 행동들이 모여 전체 분위기를 망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독목 내뿜는 부정적인 말들, 검증되지 않은 뒷담화들이 퍼져 나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것이다. 이러한 저주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주제를 바꿔서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하게 되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영적으로 흑암에 잡히면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질 수 있다. 거짓말, 시기, 독둑 등 독종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진자 끝없이 더러워질 수 있고, 떠나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우리를 살리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온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형을 메시야로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후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까지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다. 예수님을 정확히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악이나 음란함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단과 잘못된 자세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하겠다. 잘못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치유되도록 돕는 치유 사명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30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었다. 그렇기에 먼저 된 사명자와 전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1. 구약의 타락 사제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수준 높은 영적 경고를 담고 있다. 수 신자가 유대인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기에,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사건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1) 광야 백성들의 불순종 (유다서 1:5)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 시고 후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구원과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광야는 '광야교회'와 같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받는 곳이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예배, 봉사, 전도, 훈련 등 할 것이 많다 보니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맞다. 기도의 배경이 없고 당대에 처음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근성과 죄의 체질을 뽑아내기 위해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한다. 독을 빼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때는 환호했지만 광야에서 매일 만나면 먹고 졸고 더우니 모세를 원망했다. 불평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 원망 때문에 멸망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2)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의 죄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회, 가정,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제다. 아바, 엄마, 자녀, 할머니, 할아버지, 직분자의 역할, 전도자의 사명, 성도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받은 축복을 잊고 받지 못한 것만 탐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다. 자기가 이미 받은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천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으며, 하나님 다음 가는 권세를 누리는 복된 존재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항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지 모르겠다. 내 제자 서지웅은 성도 이들도 없는 '성도야'였지만(서지웅 성은 그를 거둔 관사님의 성을 딴 것이다) 불평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성공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AI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엄청난 기회의 땅이다.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는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나라이다. 왜 그런가? 세계복음화하려는 것이다.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다.

(3) 소돔과 고모라 (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율란하며 다른 유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유체'는 동성애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타락의 끝이 동성애라고 말한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 물론 선천적으로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고 도와야 할 전도대상자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인간은 끝없이 타락해질 수 있다. 날마다 복음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한 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리다.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리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응답이 다 실재가 된다. 진짜 그렇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육하고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저는 기도하고 있다. 내가 과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100명 이상을 공부시켜서 대학에 보냈다. 그 아이들은 도시락만 겨우 챙기고 책 하나도 없이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었지만, 결국 100명 이상을 다 대학에 보냈다. 제자 서울에 와서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은 다 '가' 능성이다. 서울대를 나왔든, 혹은 한글을 못 읽든 상관없다. 여러분이 복음과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전문인이 될 수 있으며,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의 싸움, 곧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것이다. 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인상 쓰고 고민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과 전도를 고민하라. 예배에 나와서 집중하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안 해도 말씀을 들으니 변화가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메시징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설교말씀을 적는 습관이 다니까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예배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못하며 탄생을 가한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에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그 램프의 끝순이보다 달게 느껴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확실히 붙잡혀지면, 그 램프도 후대나 성도들은 안 될 수가 없다. 반드시 다 축복을 받게 되고 흑암이 켜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4) 가인의 길 (유다서 1:11) 가인은 질투하여 동생을 죽였다. 그는 피 없는 제사, 즉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여야 한다. 가인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칫하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추어서 그리스도가 된 줄 아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흑암의 머리를 박살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당신 자신을 희생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 예수님을 전하여겠다"라고 결단해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뿐만 아니라 경제, 건강, 가정, 직장, 학업의 모든 길에 여실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하신 말씀처럼, 그 응답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리고 영적으로 증언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지혜, 지식, 정치성향(좌파, 우파), 학벌, 그리고 온갖 고집과 아집이 들어 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인상 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나'다. 반면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혼과 영의 싸움이다. 영이 약하면 혼에게 지게 된다. 또한 육신에게도 진다. 돈, 타락, 중독 같은 육적인 것에 빠져 패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증언하고 영으로 증언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5) 발람의 어그러진 길 (유다서 1:11) 발람은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선지자다.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인계로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돈 때문에 성도를 타락시키는 행위다.

(6) 고리의 패역 (유다서 1:11) 앞서 말했듯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하여 분열을 일으킨 고리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다. 고리는 당을 지어 영적 지도자에게 대적했다. 고라 한 사람 때문에 250명의 지휘관이 동조했고 그 결과로 만 명이 넘는 백성이 죽음을 맞이했다. 고라는 본래 예배를 가장 잘 드려야 할 레위지와 사람이었다. 민수가 1장 족보를 보면 그는 분명한 레위 자손이다. 그러나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예배를 잘못 드리고 종교인이 되면, 결국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는 "당신만 레위 자손이냐?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생각하며 대들었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다.

(7) 불신앙에 빠진 악한 사람들의 특징 (유다서 1:12-13) 성경은 이러한 불신앙에 빠진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애찬의 압조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를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표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암조란 무엇인가?' 물 밑에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지만, 배가 부릿하면 파산하게 만든다. 교회 안, 성도들의 교회(애찬, love feast) 속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부릿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을 파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처럼 건조한 땅에서 구름이 끼면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열매 없는 가를 나무'도 마찬가지다. 가을이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언약과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유다는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2.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다.

(1) 믿음과 감사로 싸우라 광야에서 다 불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과 감사로 승리했다. 여러분이 그 대표가 되어야 한다. "누가 어쨌다" 말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아 내가 살리면 된다. 내가 우리 나라 살리며,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면 된다. 할렐루야.

(2)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라 사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 한다"며 핑계를 대가 만든다. 타당한 이유가 많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는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온통 돈, 돈, 돈 생각뿐이다. 정작 돈도 벌지 못하면서 매일 돈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길과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다. 남이 받은 축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된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나, 비결이 뭐냐, 나도 좀 알려달라"고 물으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24시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어떤 주에 우리 지휘관이 공연을 하겠는데, 그곳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신혜 자매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이 한국에 몇 군데 없다고 하더라.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든지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오히려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세계복음화도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복한 복음의 공동체인가? 여러분이 그 사역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하라 끝을 짓은 끊어야 한다. 술, 담배, 마약, 도박은 영혼을 약하게 만든다. 사탄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 삶을 갇아먹는다. 거룩한 쪽으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이 행복과 축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다.

(4)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라 가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종교에 불과하며 흑암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희생하셨다. 나도 교회와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5) 돈과 권력, 교만을 경계하라 발람과 고라는 돈과 권력 때문에 실패했다. 삶의 이유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과 행동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라면 쓰임받지 못한다. 설교 심판을 받게 된다. "저놈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구나"라고 느껴져야 한다.

결론 : 전도자의 자세와 승영

이 세상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다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전도와 전도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지금까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승용해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다. 마약, 도박, 중독, 가정불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동시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다. 예전에 롬살롱에만 들어가서 전도하는 분이 계셨다. 우리도 신학생 때 팀을 짜서 가했는데, 그분은 마담과 아가씨들을 불러놓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 계속 그 사역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소년사역이나 특수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문성과 영적 준비 없이 "내가 짱째로 전도하겠다"고 덤비다가 오히려 내가 그 죄에 빠지거나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하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며 사역해야 한다.

결론이다. 평생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유다서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조심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에서 승리하고 복의 근원이 되며, 정말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 램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